

## 북미 화인작가 刘荒田 산문에 나타난 초국가성 — 『刘荒田美国笔记』를 중심으로

송주란\*

### 【목 차】

1. 머리말
2. 화인화문문학(华人华文文学)과 초국가성
3. 초국가적 시선으로 바라본 이주자의 일상
4. 시·공간의 초국가성: 장르 혼용과 관찰자적 시선
5. 맺음말

### 【초록】

필자는 본고에서 刘荒田의 산문을 통해 기존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보여주었던 이주와 초국가성의 특징으로 묘사되었던 작품 내용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刘荒田의 산문은 출발지 중국을 떠나 거주지 미국에서 살아가는 화인들의 일상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한 인간 삶의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주목한다. 刘荒田의 관찰자적 시선은 특정 국가나 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차별을 배제한 채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의 태도와 인생에 맞춰있다. 刘荒田의 산문에는 시간과 공간의 초국가성으로 인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중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으로 화인화문문학을 이주자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경계와 틈새의 특징은 화인화문문학에도 상당수 나타나고 이것은 또한 세계문학의 가능성도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미화인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초국가성, 이민자 문학, 刘荒田산문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heeya5280@hanmail.net)

## 1. 머리말

중국문학의 범주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여러 국·내외 학자들의 논의와 주장이 있었고 그 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타이완, 홍콩, 마카오,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을 중국문학에 귀속시킬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문학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모호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중국문학을 정의하는 관점과 기준은 학자나 연구자들이 소속된 국가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sup>1)</sup> 특히 화인 작가들이 중문으로 쓴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에 대한 성격 규명에서도 학자들의 논의와 주장은 엇갈린다. 김혜준은 화인화문문학을 국가나 민족 단위의 문학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를 지닌 문학으로 인식한다.<sup>2)</sup> 김혜준은 화인화문문학을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작품에서 드러나는 초국적 세계 인식을 통한 트랜스내셔널 문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김혜준의 논의에 동의하는 바이며 그의 논의의 연속선에서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대륙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 문학이자 비주류 문학으로 인식되었던 홍콩문학, 대만문학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화인(華人)들의 화문문학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소량이긴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sup>3)</sup> 국내에서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연구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김혜준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이 있고, 고희림의 박사논문인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이 있다. 여효림의 박사논문 『美国华人小说中的双重他者性与文化身份认同』과 최하경의 「캐나다화인화문문학 작가 陈浩泉소설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이주자의 모습」과 김다슬의 「북미 화인화문작가 黄运基의 장편소설 『奔流』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 등이 있다. 이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인화문문학의 공통적인 특징에는 초국가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문제점들과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등이 작품에 드러난다. 이주와 초국가성은 불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서적을 참고 하기 바란다.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시노폰담론, 중국문학』, 학고방, 2017.

2)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학회, 2022.

3) 송주란, 「예쓰 작품에 나타난 홍콩 도시화에 대한 기억과 흔적」, 『중국학』, 제54집, 대한중국학회, 2016, p.241.

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주의 역사가 누적됨에 따라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나는 초국가성의 특징 또한 그 결을 달리한다. 류황텐(刘荒田)의 산문집 『류황텐 미국 에세이(刘荒田美国笔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류황텐의 산문에 나타나는 초국가성은 기존의 화인화문문학 작품에 나타났던 초국가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그 관점과 시각이 진일보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에 필자는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났던 초국가성과 비교하여 류황텐의 산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국가성에 대한 특징을 류황텐 산문집 『刘荒田美国笔记』를 통해 산문의 내용과 문체 및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화인화문문학이 가지는 이주자 문학으로서의 본질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화인화문문학(华人华文文学)과 초국가성

화인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함의를 가진다. 20세기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한족(汉族)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이후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한족에 동화되었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한족 문화에 융화된 집단의 사람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인’이란 의미는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족이나 문화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한족에 동화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말한다. 과거에는 현재의 ‘화인’이라는 개념을 ‘화교’라는 단어로 폭넓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화교’는 법률적으로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화인을 말하며, 타이완·홍콩·마카오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동포’로 호칭한다. 다시 말해서 화인은 중국 외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로 이들은 자신 또는 그들 조상의 고향인 중국대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자들로서 디아스포라로 간주할 수도 있다.<sup>4)</sup>

디아스포라는 원래 정치적인 이유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중엽 이후로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자본이나 인적 네트워크의 전지구적 확산과 이동에 따라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여 거주지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들 디아스포라

4)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pp.80-81 참고.

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국이나 고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본국이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여행자 또는 난민, 망명자, 추방자와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화인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라는 상위 범주에서 화인이라는 인간 집단으로만 범주를 한정시킴으로 디아스포라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창작된 문학 작품을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라 지칭한다. 하지만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라고 지칭 할 때 인종 혹은 민족이라는 범주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구분되지만 창작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그 범주가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화인 영문문학, 화인 일문문학, 화인 프랑스문학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화인의 문학을 화인문학으로, 화인이 중국어로 창작한 문학을 화인화문문학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김혜준은 일찍이 화인화문문학이라는 개념을 정리했고 이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sup>5)</sup> 필자는 김혜준의 화인화문문학에 관한 개념 정의와 논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본고에서 화인이 서사한 문학을 화인문학으로 화인이 중국어로 창작한 문학을 화인화문문학이라 명명하겠다.

화인문학은 그 개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초국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초국가적이라는 의미는 국가를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 또는 특정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손유디·여현철의 논문<sup>6)</sup>에서도 초국가성을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국가라는 경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횡적으로 넘나드는 행위와 경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초국가주의의 초창기 개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국가성에 대한 함의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먼저 초국가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생겨난 개념어로 이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좁게는 자국에 대한 극단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국수주의로 이해되기도 했고,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에 비유되어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는 초국가성에 대한 연구는

5)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50, 중국어문연구회, 2011; 김혜준,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2017;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학회』, 2020;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학회, 2022.

6) 손유디·여현철, 「재미 화인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본 화인 사회의 초국가성: 린위탕의 장편소설 “Chinatown Family”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12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대부분 국가와 국가 또는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 개 이상의 국민국가에 정착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국가성은 한 개 이상의 국가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그(그녀)가 개인적으로 맺게 되는 초국적 사회,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 또는 지구화의 의미는 초국가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세계화 또는 지구화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론이며 환경학이나 사회학에서나 실현 가능한 이론이다. 이에 대해 소이살(Soyсал)은 지구화를 국민국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규범 질서의 등장으로 설명하였고, 커니(Kearney)는 지구화를 특정 국가의 영토로부터 탈국가적 성격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sup>7)</sup> 다시 말해서 초국가성은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허문다는 의미로 사용한 세계화 또는 지구화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국민국가의 경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경계나 지역을 횡적으로 넘나드는 행위와 그로 인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볼 수 있다.<sup>8)</sup>

그렇다면 화인문학과 초국가성의 연관 관계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국가성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10년대이다. 이는 당시 이주민의 정체성과 관련한 담론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후 초국가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주자들과 자본계층 그리고 종교적 공동체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운동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지금의 초국가성은 이주자와 같이 가치 중립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담론을 초월하는 광의의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sup>9)</sup> 이처럼 초국가적 담론의 배후에는 이민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대륙의 이민사는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화인들은 오늘날의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교통 무역의 중심지로 이동하였다. 그 후 16세기부터 1840년 아편전쟁 이전까지 두 번째로 화인의 진출이 있었고 19세기 이후부터 대규모의 이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화인의 90%이상은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있고, 아시아 지역 이외 지역 중에서 화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미국, 캐나다를 대표로 하는 북미 지역이다.<sup>10)</sup>

7) 손유디·여현철, 「재미 화인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본 화인 사회의 초국가성: 린위탕의 장편소설 “Chinatown Family”를 중심으로」, pp.168-171 참고.

8) 손유디·여현철, 「재미 화인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본 화인 사회의 초국가성: 린위탕의 장편소설 “Chinatown Family”를 중심으로」, pp.165-171 참고.

9) 손유디·여현철, 「재미 화인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본 화인 사회의 초국가성: 린위탕의 장편소설 “Chinatown Family”를 중심으로」, p.165 참고.

10) 정성호, 『화교』, 살림, 2010, pp.6-8 참고.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 류황텐(刘荒田)은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 황완화(黄万华)의 시기 구분법<sup>11)</sup>에 의하면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까지의 시기인 제3기 이민자 그룹에 속한다.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타이완이 미국의 우방으로 부상하게 됨으로서 타이완 유학생들과 중국대륙에서 이주한 작가들이 북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시기이다. 당시 이러한 이주 열풍이 일어난 배후에는 미국 이민사에서의 정치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1943년 미국이 과거 60여 년간 지속해온 중국인 배제법이 철폐된 점과 1965년에 실시한 미국 이민법 개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5년의 이민법 개정은 아시아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했다. 그 내용은 미국 이민사에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매년 모든 국가에 공평한 숫자의 이민자 쿼터를 분배했고, 한 해 2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허용했다는 점이다.<sup>12)</sup>

류황텐은 1980년 32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중국대륙의 개혁개방 이후 가장 빠른 이민에 해당된다. 사실 이민이라기 보다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피난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류황텐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언어상의 문제로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했고 이러한 이유로 가장 천하고 힘든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창기에는 차이나타운에서 일했고 영어를 습득한 후에는 서양인 밑에서 일했다. 류황텐은 거주지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소재로 그의 산문집 『刘荒田美国笔记』을 기록하였다. 『刘荒田美国笔记』는 그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초국가적 시선으로 바라본 이주자의 일상

류황텐의 산문은 내용적인 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 초국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 문학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화인화문문학은 그 자체로 초국가적인 특징을 가진다. 둘 이상의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은 한 국가나 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형성된 정체성과는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화인이 창작한 소설 작품에 드러나는 초국가적인 특징들에 대해 이미 밝힌 바 있다. 김혜준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에서 북미 화인화문학과 중국대륙문학의 차별화에 대해 소설 속 공간적 배경이 북미라는 이국적인 취향과 중국대륙문학에서는 수면으로

11) 고희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2012. 참고.

12) 고희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참고.

끌어올리기에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건, 홍콩과 타이완의 정치적 문제, 소수 종족 문제, 중국공산당에 대한 견해 표출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인 가정을 소재로 화인과 주류사회, 화인과 다른 소수 종족과의 관계, 연애, 부부관계, 자녀교육, 노부모 부양, 가정의 경제 등 다양한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고혜림 역시 그의 학위 논문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에서 바이셴웅(白先勇), 우리화(於梨华), 장시귀(张系国), 니에화링(聂华苓)의 소설을 통해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특징들을 정체성과 상실, 소외, 이상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다슬은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 황원지(黄运基)의 소설 『奔流』를 통해 화인의 삶을 분석하고, 최하경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 작가 천하오취안(陈浩泉)의 소설을 통해 화인 이주자의 삶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화인이 창작한 소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의 체험을 중심으로 그(그녀)가 듣고 보고 읽었던 것들을 토대로 창작하는 허구의 창작물이다. 물론 이 허구라는 것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허황된 상상력이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추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이 창작되기 위해서는 작가와 독자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약속한 관습 즉 약속이 있다.<sup>13)</sup> 기존의 연구는 소설이라는 허구의 창작물을 통해 화인화문문학의 특징들을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사실을 전제로 서사하고 기술하는 산문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초국가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산문을 통해 드러나는 초국가성은 허구적인 소설이 인위적으로 만든 막을 통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작가가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사건과 생각을 기반으로 기술한 산문을 통해 나타난 초국가성의 면면에 대해 살펴보자.

류황텐의 산문은 초창기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와는 차이를 보인다. 초창기 북미 화인화문문학이라고 하면 18세기 후반부터 1945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14)</sup> 이 시기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 이주가 주를 이루었고, 이들은 거주지에서 적응하고 거주지 문화에 융화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 시기 문학적인 형태의 글은 미비했고, 굳이 문학적 글쓰기를 찾고자 한다면 편지글 형태의 글쓰기가 존재했을 뿐이다.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인 화인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기는 1945년에서 1950년대 말이다. 1943년은 미국이 60여 년간

13) 소설은 허구라는 사실과 개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약속이다. 이것을 소설 이론에서는 소설에서의 관습이라 한다.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 2010, p.272.

14) 본고에서는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을 고혜림의 논문을 근거로 한다.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2012.

지속해온 중국인 배제법이 철폐된 해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또 이 시기는 다수의 중국인들이 북미로 이주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괄목할만한 화인 작가군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화문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기로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은 북미 이민 역사에서는 제3기에 해당하며 타이완 유학생들의 이민 붐이 붙었던 시기이다. 제4기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이민으로 이 시기 북미에서는 풀뿌리작가군(草根文群)<sup>15)</sup>으로 분류되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이민 2세와 3세 작가들도 등장한다. 이 시기는 타이완 이외의 중국어 문화권 출신 작가들의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특징이다.

1980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류황텐은 타이완 유학생이 대거 이주하던 제3기에서 풀뿌리 작가군이 등장하는 제4기에 속해있다. 제2기, 제3기 이주자들로 구성된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주요 주제나 소재는 정체성의 혼란과 고향에 대한 향수, 상실과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류황텐의 산문에 와서는 이전의 문학적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단절된 느낌을 준다.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의 주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류황텐 산문에서는 작가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변화를 보인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류황텐 산문에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인물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자. 작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화인들의 삶에 주목하기보다는 국적이 제각각인 여러 이주자의 일상과 인생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백인 미국인뿐만 아니라 흑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비주류문화에 속해있는 소외된 자들이자 미국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소수자들로서, 작가가 자신의 일터나 직장 또는 이웃에서 만났거나 소문을 통해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월트의 대시(华尔特的“破折号”)」<sup>16)</sup>는 한 호텔에서 근무했던 흑인 월트의 죽음을 파헤쳐가는 소설형식을 띤 산문이고, 「죽음의 가면(死亡假面)」<sup>17)</sup>은 남아메리카 니카라과에서 온 Jose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Jose는 한때 류황텐의

15) ‘풀뿌리 작가군’은 작가이자 평론가인 종잉(宗鷹)이 제시한 개념으로 1990년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등장한 작가군으로 차이나 타운에 거주하는 하층 화인의 삶을 주로 다룬다. 이 풀뿌리작가군은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독특한 창작집단이자 계층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화인들의 삶의 방식과 일상을 자신들의 작품에 투영하고 묘사한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黄运基, 陈中美, 刘荒田, 王兴初 등이 있다. 김다슬, 「북미 화인화문문학작가 黄运基의 장편소설 『奔流』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21 참고.

16)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河北教育出版社, 2008, pp.73-87.

17)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110-127.



상사로서 이 산문의 내용은 그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형식은 추리소설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초원”·사랑·술(“草地”·爱情·酒)」<sup>18)</sup>는 백인 미국인으로 호텔에서 근무한 바텐더 Jimmy의 삶을 통해 미국인과 중국인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들 산문이 다루고 있는 주인공은 이주자 화인들이 아니라 백인 미국인, 흑인, 중국 외 국적의 이주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류황텐의 산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대부분은 하층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산층 사람들이나 주류계층의 인물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퍼스트 레이디 강연하러 오다(第一夫人来演讲)」<sup>19)</sup>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연설하게 된 현지 민주당 서열 제1위의 부인 강연 준비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된 현지 사람들의 태도와 미국 문화에 대해 암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초창기 화인 작가들이 주로 다루었던 인물이 화인이거나 작가 본인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류황텐의 산문에서는 작가의 시점이 다소 이동되었음을 볼 수 있다. 류황텐 산문에서 나타나는 관찰자 시점은 작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다. 이는 마치 철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당시 새로운 공간이었던 대도시의 공간을 애증의 시각으로 바라본 관찰자로서의 산책자 시선<sup>20)</sup>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류황텐이 주목한 인물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 이주자만이 아니었고 국적을 초월한 한 개인에 대한 삶의 형태와 방식이었다. 류황텐의 산문이 초국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비애에 잠기지 않았고 애석해하지 않았다. 단지 인생과 목숨에 관해서 경미한 탄식과 깊은 사색에 빠졌을 뿐이었다. 그렇다. 월트같은 극단적인 향락주의자에게 목숨은 과정일뿐이었다. 그와 목표를 향해 분투하고 최종적인 의미에 대해 말했던 적도 있었지만 역시나 소귀에 경읽기였다. 그렇지만 그에게 단 한 번도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sup>21)</sup>

인용문은 월트의 죽음을 통해 신분의 고귀함을 떠나 한 생명이 살았던 인생을 보여준다. 그 개인만이 가지는 삶의 의미를 통해 모든 인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깨달음이 있다. 이주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볼 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128-134.

19)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151-155.

20)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p.110.

21) 对于他的死, 我没有伤感, 没有惋惜, 只有轻微感喟和沉重的思考, 关于人生和生命。不错, 生命仅仅是过程, 像华尔特这般极端的享乐主义者, 和他谈奋斗目标, 终极意义, 自是对牛弹琴。然而, 他从来没有过“理想”吗? 又不见得。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84.

라오핑쯔(饶芑子)의 『北美新移民文学30年』에서는 북미 신이민문학의 특징을 다양한 소재 즉 중국 고사나 역사, 중산층, 환경, 자아성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은 류황텐의 산문에도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모닥불에 질문하다(叩问篝火)」, 「살아가는 이유(为什么活着)」, 「차이나타운에서의 노래(唐人街上一支歌)」 등이 있다. 초창기 화인문학의 주제가 주로 향수, 조국에 대한 그리움, 고달픈 현지의 삶,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방황과 갈등,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류황텐의 산문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얽매인 인물이 아닌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일상과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초국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인화문문학의 관점보다는 국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민자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시·공간의 초국가성: 장르 혼용과 관찰자적 시선

류황텐의 산문은 초창기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주로 다루던 소재를 극복하고 이들과 구별되는 국적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한 개인의 삶의 방식과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현상을 나열하는 방법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승전결의 플롯을 갖춘 소설형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류황텐은 소설형식을 산문에 차용하고 있고, 그의 산문 다수가 소설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장에서 상술한 산문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면(死亡假面)」, 「두 남자의 전쟁(两个男人的战争)」<sup>22)</sup>은 단편소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스토리 구성을 잘 갖추고 있고 그 분량 역시 상당하다. 「죽음의 가면(死亡假面)」은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분량은 18페이지에 달하며, 「두 남자의 전쟁(两个男人的战争)」은 8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분량은 32페이지에 달한다. 이러한 문학 장르 붕괴 현상을 초국가적 개념으로 치환하여 해석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초국가주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학자는 바쉬(Basch), 쉐러(Schiller), 블랑(Blanc)이다. 이들은 초국가주의에 대한 정의를 이주자들이 모국과 정착국의 양쪽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파악했다.<sup>23)</sup>

22)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230-262.

23)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28, 재외한인학회, 2012, p.23.

이러한 초국가적 개념을 문학 장르에 적용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 장르는 시, 산문, 소설, 희곡으로 분류한다. 기존의 관습에 따른다면 하나의 문학 장르는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류황텐의 산문집 『刘荒田美国笔记』에는 소설형식의 산문과 시가 삽입된 산문, 희곡적 요소인 대화가 삽입된 산문이 상당수이다. 산문에 시를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시시피의 비를 기다리며(听雨密西西比)」, 「구내식당에서 시인을 우연히 만나다(在员工食堂邂逅诗人)」, 「월트의 대시(华尔特的“破折号”)」, 「행복을 쥐고 귀가하다(提着幸福回家)」 등이 있고, 희곡적인 요소가 삽입된 산문에는 「구내식당에서 시인을 우연히 만나다(在员工食堂邂逅诗人)」, 「수닭이 꼬꼬댁(大雄鸡, 喔喔啼)」, 「쾌속솔과 전업남(“快锅王”与“当家男人”)」, 「차이나타운에서의 노래(唐人街上一支歌)」, 「아버지와와의 대면(面对父亲)」 등이 있다. 류황텐의 초국가적인 글쓰기와 사교의 확장은 문학 장르에서도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와 장르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학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류황텐의 산문은 여러 종류의 문학사조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낭만주의적 글쓰기부터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적 글쓰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글쓰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주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정체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인 중 하나가 공간의 초국가성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특징으로는 노마드적 기질을 언급할 수 있다. 이주자들은 그들이 정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출발지인 모국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나 갈망이라는 정서적 차원에서보다는 삶의 주변성과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유동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고찰해야한다.<sup>24)</sup> 이들은 거주국에서 중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지인이나 현지 이주자들과 구분되는 자신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자신의 다층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sup>25)</sup> 류황텐 산문의 특징은 초창기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주로 다루던 화인의 불분명한 정체성과 그로 인한 소외 문제가 부각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다중 정체성을 수용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이주자들의 삶과 더 나아가 거주국 미국인의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한 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류황텐의 산문에 드러나는 문학 장르의 혼용과 혼합 역시 공간적 초국가성으로 인해 형성된 다층적 정체성과 그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류황텐의 산문에는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작가가 목도한 현상 그리고 사물과 자연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류황텐은 동일한 소재를 다루었던 초창기 화인화문문학

24)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p.35.

25)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p.35.

의 관점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화인들의 언어 문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외현상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출발지와 거주지 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이주자인 화인이 어떻게 수용하고 인지하고 갈등하는지를 작품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의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류황텐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충격적인 사건이나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더 나아가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관조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산문 「다운타운으로 가다, 중기난 채 배회하기(下城, 帶骨刺的漫遊)」<sup>26)</sup>는 류황텐이 발다닥에 난 중기를 치료하기 위해 도심으로 외출하면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장면들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류황텐은 글 사이사이에 당시 미국의 상황과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단상을 내비치고 있다. 이주자 화인의 시선에서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한 채 미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지미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미국인의 국민성과 완전히 부합했다. 늘 무거운 기억과 향수와 전통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볼 때 훨씬 자유롭다.<sup>27)</sup>

인용문은 「“초원”·사랑·술(“草地”·愛情·酒)」중 한 부분으로 관찰자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화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미국의 국민성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향수, 전통을 힘겹게 지고 있는 중국인의 국민성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고 서술한다. 이는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이주자들이 거주지에서 느꼈던 고향에 대한 기억과 향수 그리고 전통에 대해 초월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주자로서 가질 수 있는 편협된 시선을 초월하여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나타운의 동향녀(唐人街的女乡亲)」<sup>28)</sup>에서는 1세대 이주자들과는 달리 당시 여성 화인 이주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묘사함과 동시에 과거 중국 고향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쓴 글이다. 이 글은 여성 이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쓴 산문이다. 여기서 류황텐은 여성 화인에 대해 과거 중국에서 힘겹게 생활했던 것보다 현재 미국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

26)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88-104.

27) 吉米对自己的身世, 从来不提, 完全符合美国人不迷恋过去的国民性, 比起我辈, 总是背负沉重的回忆啦, 乡愁啦, 传统啦, 自在得多.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128.

28)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167-173.

한다. 가난했던 중국에서의 생활보다 풍요로운 미국에서의 생활이 더 좋다고 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정적으로는 중국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미국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거주지 언어인 영어에 대한 서술방식과 관점 역시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의 내용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서는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서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되었다고 한다면, 류황텐의 산문에서는 오히려 거주지에서 종종 듣게 되는 현지 이주자들의 다양한 영어 발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시시피의 비를 기다리며(听雨密西西比)』<sup>29)</sup>에서는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발음에 대해 남방 영어의 특징들을 나열하기도 하고, 미시시피 부근의 영어 발음과 알파벳 R의 발음 등에 대한 이주자들의 다양한 영어 구사력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류황텐의 산문은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소재에 대해 그 내용과 관점이 구별된다. 이는 화인화문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의 초국가성에 대한 내용도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공간의 초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류황텐의 산문집 『刘荒田美国笔记』의 상당 부분은 과거 회상 기법으로 시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현재와 과거,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서술되는 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시간적 배경도 국경을 넘나든다. 또한 현재의 미국과 과거의 중국을 몽타주 기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과거 중국에서의 류황텐의 어린 시절과 현재 미국에서의 작가 자신의 삶을 대조적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공간의 초국가성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사회·문화·역사·정치적 관점에서 한 개인이 바라본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단순하고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풍경 등을 통해 중국을 회상하거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미국의 과거와 현재,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서술한다. 류황텐은 산문집 『刘荒田美国笔记』를 통해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났던 초국가적인 특징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시선과 관점에서 이주자 문학으로서의 초국가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29)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pp.7-26.

## 5. 맺음말

화인화문문학은 이주자 문학으로서 그 자체가 초국가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류황텐의 산문집 『刘荒田美国笔记』는 북미 화인화문문학으로 북미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국적인 정서를 가진다. 류황텐의 산문은 거주국인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만나게 된 여러 다른 국적의 이주자들의 일상과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종족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그녀)가 화인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는 다른 지역의 소수 종족이든 상관없다. 그(그녀)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다. 류황텐은 이들 모두를 특정 국가나 지역에 소속되어 꼬리표 붙여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류의 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화인화문문학이 이주자 문학으로서 가지는 초국가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류황텐의 산문에 나타났던 초국가성은 초창기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나타났던 초국가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서술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의 초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수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 문제, 거주국에서 느끼는 출발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상, 거주국에서 삶의 부적응으로 인한 상실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류황텐의 산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을 향한 관심과 관찰로 깨닫게 된 한 개인의 삶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삶의 가치문제를 의식하고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철학적 단상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장르에서 볼 때, 초창기 화인화문문학이 주로 다루었던 초국가성에 대한 작품의 장르가 소설에 국한된 것이 많았다는 점과 달리 류황텐은 산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초국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산문이라는 장르가 순수한 산문이라는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또한 특징이다. 그것은 소설화된 산문, 희곡적 요소가 포함된 산문, 시를 포함한 산문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의 초국가성이 문학 장르로 까지 확장되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류황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학 장르의 붕괴 현상을 일으킨 것은 작가 본인이 지닌 초국가적인 속성으로 인해 형성된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에 의해 그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의 서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대륙을 넘나드는 시간과 공간의 초국가성 역시 류황텐의 산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처럼 류황텐의 『刘荒田美国笔记』는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학에 국한된 것

이 아닌 다중적인 성격을 가진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화인화문문학을 중국 문학의 연장선에 있는 중국문학의 지류 문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발지와 경유지 또는 거주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관습의 차이와 결합의 과정과 결과로 형성된 틈새 또는 사이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제 현상들을 초국가적인 문학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초국가적인 특징을 가진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그 자체로 세계문학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민정·이경란 외 지음, 『미국 이민소설의 초국가적 역동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 2010.  
 정성호, 『화교』, 살림, 2010.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 학고방, 2017.  
 윤병로·조건상·강우식, 『문학개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필립A. 쿤 지음,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시사, 2008.  
 江少川·朱文斌 主编, 『台港澳暨海外华文文学教程』, 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07.  
 刘 东 主编, 『他者中的华人-中国近代移民史』, 江苏人民出版社, 2016.  
 刘荒田, 『刘荒田美国笔记』, 河北教育出版社, 2008.  
 倪立秋, 『新移民小说研究』,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09.  
 饶芃子, 『北美新华文文学』, 宁夏人民出版社, 2006.  
 周 敏, 『唐人街-沈具社会经济潜质的华人社区』, 商务印书馆, 1995.

### <논문>

-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2012.  
 \_\_\_\_\_,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_\_\_\_\_,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시선과 성격」, 『중국학논총』, 49, 중국학연구소, 2015.  
 \_\_\_\_\_, 「화인화문문학의 세계와 세계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 10-10,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7.  
 김다슬, 「북미 화인화문작가 黄运基의 장편소설 『奔流』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21.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 \_\_\_\_\_,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2017.
- \_\_\_\_\_, 「캐나다화예작가협회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 \_\_\_\_\_,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학회, 2020.
- \_\_\_\_\_, 「북미 화인화문소설에 나타난 화인의 초국적 세계 인식과 표현」,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학회, 2022.
- 손유디·여현철, 「재미 화인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본 화인 사회의 초국가성: 린위탕의 장편소설 “Chinatown Family”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12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 송주란, 「예스 작품에 나타난 홍콩 도시화에 대한 기억과 흔적」, 『중국학』, 제54집, 대한중국학회, 2016.
-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 장수현,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해의 한구화교에 대한 사례연구」, 『현대중국연구』, 11-2, 현대중국학회, 2010.
- 전형권,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5.
- 윤영도, 「신자유주의 시대 중국계 이주민의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과 변천 - 밴쿠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68, 중국현대문학학회, 2014.
-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28, 재외한인학회, 2012.
- 최하경, 「캐나다화인화문작가陈浩泉 소설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이주자의 모습」,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20.

<기타자료>

(\*아래 자료는 저자가 직접 메일로 보내준 PDF 문서로 출처와 연도가 없습니다.)

天 浩, 「荒田和他的散文——读散文集『刘荒田美国笔记』」

江少川, 「从新移民到老金山, 从乡愁到“亦东亦西”——与旅美散文家刘荒田对谈」

古远清, 「胆大包天的刘荒田——读『刘荒田美国小品』」

程国君, 「非小说化与“地道的散文”」

陈瑞琳, 「美国华文文坛的“假洋鬼子”」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北美, 华人华文文学, 华人华文文学, 超国际性, 移民文学, 刘荒田散文				
	영문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 Transnationality, Migrant literature, Liu Huang-Tian's prose				
<p><b>Transnationality reflected in the North American Chinese Writer, Liu Huang-Tian's Prose : Focusing on 『刘荒田美国笔记』</b></p> <p style="text-align: right;">Song Ju-Ran</p> <p>Although the research on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which has been recently studied in Korea, is rather slow in its progress, it is gradually accumulating in terms of the quantity of works. Examining the existing research on this, the main contents of the works are the longing for the hometown due to the exhaustion and loneliness of life in the residence, confusion, alienation, and conflict due to multiple and mixed identities. This has to do with the transnationality brought about by migration.</p> <p>This paper analyzed the work through Liu Huang-Tian's prose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orks characterized by migration and transnationality shown in the existing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Through this, this paper attempted to improv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xisting studies o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Liu Huang-Tian's Proses focus on the universal problems of human life through interest and observation of a single human rather than the lives of overseas Chinese who left China, their origin and liv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reside. The observer's gaze of Liu Huang-Tian focuses on the attitude and life of a human being's living in solidarity with the exclus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 particular country, ethnicity, or race.</p> <p>In this way, Liu Huang-Tian's proses should be regarded as migrant literature with multiple characteristics,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country or region, due to the transnationality of time and space. The nature of the boundaries and gaps that the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has seems to have the potential of world literature as well.</p>						
저 자	송주란 / 宋珠蘭 / Song Ju-Ra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5.20.	심 사 일	2022.05.26.	게재확정일	2022.06.11.